

조선을 섬긴 서서평선교사의 삶과 유아교육적 함의*

The Lif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cations of Seo, Seo-Pyeong Missionary who Served Joseon

하 연 희 (Yeonhee Ha)**

김 초 룡 (Cholong Kim)***

정 병 탁 (Byungtak Jeon)****

권 미 량 (Mee Ryang Kweon)(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modern society by examining the life of missionary, Elizabeth Johanna Sheping(徐舒平), who was sent to Joseon as a nursing missionary in 1912 and devoted her life to Joseon. To this end, through inductive analysis of literature, video, and photographs, the life of missionary Seo, Seo-pyeong was examined. As a result,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cations were derived: healing in which relationships were restored, teaching with practical care, and an educational community served with a low heart.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nature of life-respecting life and education in modern societ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here the restoration of humanity is urgent, and to move forward to a happy early childhood education site together with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with love, service, and commitment.

Key Words: Seo, Seo-Pyeong, missionary, love, service, devotion, commun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2일 최종수정, 12월 3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2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조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fresh-525@kosin.ac.kr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조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122004@kosin.ac.kr

****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운영팀장, 부산 동래구 금강로 129, takbyung@hanmail.net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mykidlove@kosin.ac.kr

I. 서론

일찍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는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조선말기의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문화를 접하면서 발달되었다. 당시 내한선교사들은 한국인이 교육열이 높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복음의 수단으로 활용했다(오주철, 2023 :43). 1884년 매클레이(R. S. Macley), 앨런(H.N. Allen)부처, 1885년 언더우드(H. G. Underwood)·아펜젤러(H. G. Appenzeller)·스크랜턴(Mrs,M. F. Scranton) 등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교육과 의료로 선교의 수단으로 삼아 의료로 한국인의 불행을 구제하고, 교육에 의해 계몽하려 했다(송치숙, 박종배, 2019). 이를 통해 ‘배재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등이 설립되었으며. 개신교 선교사들은 우리 사회에 인간관과 우주관, 평등사상과 사물에 대해 과학적 지식과 서구적 합리이론을 소개해 주었다(오주철, 2023 :43.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선교사 브라운리의 공헌이 지금까지도 유아교육의 역사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근대 우리나라는 1897년 부산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졌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으로 규정짓지 않고 있다. 한국인을 위한 유치원은 1914년 미국인 선교사 브라운리(C. Brownlee)가 이화학당부설 이화유치원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한국 어린이를 위해 유아교육전문가가 설립한 우리나라 유치원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상금, 1987 ; 이윤진, 2006 ; 송치숙·박종배, 2019).

이렇듯 선교사들은 한국 근대교육 및 유아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서서평은 근래에 근대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선교사로 재조명되어졌다. 서서평이 조선에 입국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에 언론(뉴스앤조이, 2012.3.14.)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억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서서평 선교사(Elisabeth J. Shepping, R.N. 1880-1934)는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미국 남 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된 여성간호사로 구한말에 광주, 군산, 전주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 활동했다. 1934년 6월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국인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를 바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간호선교사였다. 또한, 그녀는 이방인의 땅 조선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나라 여성과 어린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거룩한 섬김의 사역을 마치게 된 시대의 선지자라 칭송되어진다.

양창삼(2012)의 저서를 살펴보면, 서서평은 1912년 내한 이래 간호, 교육, 복음전도, 사회선교의 4가지 사역에 헌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서평은 여성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단기 성경학교를 개설하

기도 했다. 이후 1926년 광주 양림동에 이일학교를 세우고 성경공부를 통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계몽을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3년제 사립학교였다(양삼창, 2012). 이는 현재 한일장신대학의 모체이다. 서서평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지만, 여성을 계몽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일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정위생, 영양 및 교육론, 상처치유, 전염병 예방 등을 포함한 간호 교과까지 다양한 가르침을 실행했다.

최근 섬김의 사역으로 재조명되기도 한 서서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적 사역에 대한 연구(윤매옥, 2016 ; 조혜경, 2018), 신학 및 선교적 사역에 대한 연구(강정희, 2022 ; 김기용, 2020 ; 박형국, 2017 ; 임희모, 2019 ; 임희모, 2020) 교육적 사역에 대한 연구(백춘성, 1980 ; 김은주, 2015 ; 김혜정, 2020) 사회적 봉사 사역 및 신념에 대한 연구(이혜숙, 2016 ; 이란·지상선, 2017) 등이 있다. 최근 서서평의 간호사, 의료선교, 교육자,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재조명하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서평의 교육적 사역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선교사적 사역과 사회 봉사적 사역 등의 연구에 비해 미비하다. 특히 고아의 어머니라 불리어왔던 그녀의 삶은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14명의 자녀를 입양하고 보살피며 한국의 간호교육과 여성교육에 헌신한 서서평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의 교육적 섬김이 현재 우리사회 및 교육에의 적용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해방을 맞이하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거쳐 1983년 유아교육진흥법, 2003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며 양적 확장과 함께 체계적이고 질적인 발전을 해 왔다. 2024년 현재 유아교육은 유보통합이라는 큰 전환의 시점에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육아 비용, 교육 경쟁 등의 요인으로 출산을 꺼려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문제에 직면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약 0.78%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으며 국가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사회 전반에 육아와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초저출산 위기의 우리나라가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일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행정적 통합 시행을 시작으로 점차적인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이해와 통합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헌신하는 사랑, 나눔의 삶, 성공보다는 섬김, 빠르기보다는 천천히, 대단한 사회적 지위보다는 주변의 소소함을 챙기는 삶을 살았던 서서평선교사의 삶과

교육적 활동을 고찰하므로 유아교육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랑과 헌신, 섬김으로 이 땅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돌본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전기적 생애사연구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서서평의 교육사적 접근방식의 유아교육적 적용점을 살펴보고, 그녀의 교육적 삶에서 섬김과 헌신이 오늘날의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국가적 현안인 초저출산 문제해결, 영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이 하나가 된 보다 나은 양질의 영유아 공교육 체제의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기초적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조선을 섬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전기적 생애로 살펴본다.

둘째, 조선을 섬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통해 유아교육적 함의를 고찰한다.

II. 연구방법

1. 전기적 생애사 연구

본 연구는 서서평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추적하여 고찰하는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생애사 연구는 한 사람이 경험했던 삶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삶에 대한 기록으로써 개인의 생애를 통한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김새은, 2012 ; 유철인, 1990). 또한,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양상과 영향, 사건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 참여자의 삶의 과정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요인들의 변화를 조명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개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구조화된 관점에 빠져들지 않고 사회성을 조명해 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iller, 2000 ; Schweppe, 2003). 즉, 생애사 연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희로애락 과정의 기록을 사회적 안목을 통해 해석 및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서평의 생애 기록과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전기적 생애사를 구성하여 주요사건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맥락화하고, 유아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연구대상인 서서평이 현존하지 않는 인물이기에 생애사 연구과정의 심층면접 또는 인터뷰를 제외하였고, 이에 자료 분석 및 맥락화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민성은 외(2017, 재인용)가 제시한 4가지 생애사 연구절차를 참고하여 첫 번째 자료수집, 두 번째 연구문제 진술, 세 번째 연구방법의 실행, 네 번째 자료분석, 다섯 번째 결과표현 및 글쓰기의 단계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1. Details of progress according to research procedures

Procedure	content	Period
Research Planning and Literature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 literature and prior research ▪Collect related materials and consider them theoretically 	2022. 05 - 2022. 10
Data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llect books, articles, video records and research on Elizabeth Johanna Sheping ▪List data and select research data through researcher discussion ▪Summary and classification of associated records collected 	2022. 10 - 2022. 12
An expert consult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ection of expert advisors for one exper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one expert in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2023. 01 - 2023. 01
Data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duc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words and sentences related to this study ▪Triangulation analysis, content review,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Verification by expert advisors other than researchers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nalysis 	2023. 02 - 2023. 08
Creating a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ganize research results, discuss and suggest, and report 	2023. 08 - 2024. 10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서서평의 삶의 여정을 전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서서평선교사에 대한 문헌과 영상기록물, 기사 등을 고찰을 하였다. 그 후, 한국 유아교육에 전하는 함의를 고찰하기 위해 선행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서서평의 삶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적절한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 출판시기, 쓰여진 관점, 저자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 간의 토의를 통해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서서평에 대한 최초의 저서인 백춘성(1980)의 ‘천국에서 만나다.’, 서서평의 선교사가 되는 과정과 다양한 선교사역에 관한 양창삼(2012)의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서평의 조선에서

의 생애를 기록한 양국주(2012)의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웨핑 이야기’, 서서평의 편지를 모아서 기록한 양국주(2016) ‘그대 행복한가요?: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바보들에게 살아가는 서서평의 편지’, 최초의 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현대판으로 개정한 백춘성(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 연구의 권위자인 임희모(2017)의 ‘서서평 예수를 살다.’ 등의 저서를 주요 자료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찰한 서서평의 삶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와 유아교육적 가치, 방향성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위의 저서와 함께 백춘성(1980)의 서서평과 어린이, 김은주(2015)의 서서평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함의 등 서서평 연구회와 여러 연구자들이 발표한 각종 연구논문들을 참고문헌자료로 수집하였다.

서서평에 관한 영상기록물로 2017년 개봉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수집하였다. 이는 배우 하정우가 서서평의 삶과 메시지에 공감하여 재능기부로 영화의 나레이션에 참여한 영화로 서서평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영상기록물로 연극 ‘서서평(2014)’, See you, in heaven!(2015), 서평부인(2021)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영상기록물은 주요내용을 전사하였다.

Figure 2. List of data collected

구분	저자(연도)	제목
문헌 자료(8)	백춘성(1980)	천국에서 만납시다
	양창삼(201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양국주(2012)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웨핑 이야기
	양국주(2017)	그대 행복한가요?: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바보들에게 살아가는 서서평의 편지
	백춘성(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임희모(2017)	서서평 예수를 살다
	백춘성(1980)	서서평과 어린이
	김은주(2015)	서서평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함의
영상 기록물(4)	2017년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2014년	창작 뮤지컬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2015년	연극 See you, in heaven
	2021년	연극 서평부인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의 과정은 6단계의 순환적 분석과정을 토대로 저서, 연구물, 영상기록물 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1차 분석 단계로서 수집된 자료들의 반복적 읽기 과정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한 내용을 연구자 외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신학적·기독교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회자 1인과 함께 검토하면서 그 의미들을 탐색 및 해석하였다. 두 번째는 1차분석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서서평의 생애, 삶의 의미 서서평이 현대사회와 유아교육에 전하는 가치를 탐구하고 도출하였다. 세 번째는 검증 및 2차 분석 단계로서, 수집자료와 1차 분석 자료를 연구자 외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신학적·기독교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회자 1인과 함께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여 검증 및 2차 분석을 하였다. 네 번째는 2차 분석자료를 토대로 서서평의 삶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유아교육적 함의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는 검증 및 3차 분석 단계로서 수집자료, 1·2차 분석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외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기독교교육·신학전문가 1인과 함께 삼각검증법 과정을 기반으로 3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섯 번째는 수집자료, 1~3차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되돌아보기 과정을 통하여 서서평의 삶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의미들을 수정 및 재구성을 하면서 최종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문가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유아교육전문가 1인은 현재 기독교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또한, 목회자 1인은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박사과정 중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제크리스천학교에서 교목으로 재직중이다. 한 가지 이상의 자료를 상호 교차적으로 비교하는 삼각검증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단행본 저서, 연구논문자료, 영상기록물과 기록물의 리뷰 등 자료 수집의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유아교육전문가 1인 및 신학적·기독교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회자 1인과 함께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III. 연구결과

1. 서서평 선교사의 삶

1) 초기생애와 조선으로의 여정

(1) 버려짐과 재회, 그리고 아픔

서서평(徐舒平)은 1880년 9월 26일 독일의 바스바덴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Elizabeth Johanna Shepping(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다. 그녀의 어머니 안나 쉐핑은 3살 딸을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인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 서서평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카톨릭 교구 학교에 입학했으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 서서평은 어렸을 적부터 버림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1891년 서서평이 열한 살 때 그녀 혼자서 자신을 조부모에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 한 장만 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재회한 후 독일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톨릭 재단의 성마가병원 간호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게 되었다.

서서평은 세 살 때 헤어진 어머니와 8년 만에 다시 만났다. ~중략~ 미국에 살게 된 서서평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뉴욕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 서서평은 기도했다. ~중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직업으로는 간호사,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선교사, 서서평은 바로 이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백춘성 2017. 22.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중에서)

(2) 개신교로 개종과 신학교 입학.

1901년 21살의 나이에 뉴욕시립병원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던 중 함께 있던 같은 동료에 이끌려 기독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가톨릭 예배보다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하늘나라는 나 자신이나 누군가가 행한 업적에 의해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서서평과 종교적 갈등문제를 빚게 되었고, 결국 서서평과 어머니는 의절하기에 이르렀다.

하늘나라는 난 자신이나 누군가가 행한 업적에 의해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백춘성 2017. 24.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중에서)

1904년 어머니와 의절을 당한 서서평은 뉴욕시립성서사범학교에 입학하여 8년 후 그녀의 나이 31세 때에 졸업을 하였다. 어머니로부터 두 번의 버림을 당한 서서평은 더욱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2) 조선에서의 활동

(1) 조선으로의 파송과 간호로 섬김

서른 한 살에 신학교 공부를 마칠 즈음 조선으로 갈 정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남장로회 해외선교부를 통하여 그녀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당시 미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인 조선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유는 조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선교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1912년 2월 20일, 32살의 서서평은 조선인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며 미국 남장로교의 조선 의료선교사 신분으로써 조선으로 향하였다. 부산항을 통하여 광주에 도착한 그녀는 제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한국말과 한국풍습을 익히고자,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습니다. 이때 지은 이름인 서서평의 의미는 그녀의 급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천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천천히 서 ‘徐’라고 하였고, 이름은 펄 서 ‘舒’ 즉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평할 평 ‘平’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 한다.’ 의미를 담아서 서서평(徐舒平)이라고 짓게 되었다.

서서평은 다른 서양 선교사와는 다르게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고무신에 한복을 즐겨 입었고 된장국을 좋아했다. 그녀는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서 남자용 검정고무신을 신고 지냈습니다. 특히 된장국을 먹음으로 조선 사람으로 동화되고자 하였는데, 이는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서서평의 의지이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서평은 제중병원 군산 구암예수교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고 여기서는 간호사 양성과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서평은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부상을 당하고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을 옥바라지하다가 일제로부터 서울 활동이 금지되어 광주로 내려가서 제중병원의 간호사로 일하였고 이때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성경과 실과를 가르쳤다.

부산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서평은 목표 선교부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이내 광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제중원에서 우월순을 도와 의료선교사로서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진 직임이었다.

(양삼참, 2013. 10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2)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교육세움과 낮은 자 돌봄

1922년 서서평은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여인들,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여인들,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어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등 불우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학교를 시작하였으며, ‘이일학교’ 현 한일장신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서서평은 1년 중 100일 이상을 거리에 상관없이 이동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진정한 벗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노예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도 소박맞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여성이 권리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직업을 가져야 함을 가르쳤다. ~중략~ 그는 교육을 통해 조선의 여성들로 하여금 주체의식을 갖도록 했다.

(양삼참, 2013. 10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서평은 간호사역, 사회사역 못지않게 전도사역에도 힘썼으며, 영문 선교지를 번역하거나 전도대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도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마다 부인조력회를 만들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썼으며 또한 확장주일학교 사업도 진행하였다. 확장주일학교는 어떤 동네를 주일마다 방문하여 교회학교를 실시한 것으로써 이일학교 학생 등 주일학교 교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곳곳에 확장주일학교를 운영하였다. 훗날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했던 이교환 목사님은 서서평을 가리켜 1000대 1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서서평이 홀로 1000명분의 일을 할 만큼 열정과 근면함으로 일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일학교는 그만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어여뻐 보아주신 듯 합니다.

(양국주, 2016, 201. 그대 행복한가요? 중에서)

1929년 서서평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조선간호부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갔었을 때 서서평은 자신을 두 번이나 버렸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어머니는 “네 물골이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러우니 썩 꺼리라”고 말하며 서서평을 다시 한번 내쳤습니다. 이처럼 서서평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수양딸 13명과 나환자의 아들 1명 등 14명의 한국아이를 입양해 기른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서서평의 낮은 곳을 향한 관심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상처가 큰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다시 말해 그녀의 고아 된 경험을 통하여 이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 예로 양립천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려다 목을 뱃겨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하였고, 길을 가다가 여자 한센환자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서서평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사용하였고, 정작 그녀는 근근히 버티며 생활하였다.

1933년 서서평은 동역자들과 50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는 일제총독부에게 나환자들의 삶을 요구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소식이 점차 퍼지면서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는 530명의 나환자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에 일제총독부로부터 소록도 한센병원과 요양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서서평은 인신매매 반대, 축첩금지, 공창제도 폐지운동 등 윤락여성 선도사업을 주도하였고, 윤락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서서평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서서평은 길거리 고아들과도 한 이불을 덮으면서 삶을 나누었다. 어머니를 잃은 유아들은 각별히 살피고 거리나 다리 밑에 기거하는 거지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서 ‘광주의 어머니’로 불렸다.

서평의 영향을 받아 여러 곳에 복지시설이 세워졌다. 송인동은 “서서평의 최초의 조직적 빈민운동은 근대화의 산실이 되었다”고 했고, 그를 가리켜 ‘거리와 다리 밑의 거지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서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며 광주 최초 사회장의 기록을 세운 벽안의 처녀’라 했다.

(양삼참, 2013. 197.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서평은 결혼을 하지 않고 조선으로 시집을 왔다고 생각하며 처녀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급한 성격도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성격이 남성적이고 급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느라 그녀의 급한 성격을 억누르는데 신경을 쓰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급한 성격을 주신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서서평은 평소 검소한 생활의 실천이 돋보였다. 그래서 이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무명옷이나 세양포옷으로 제한하였고, 명주옷처럼 비싼 의복은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은 의복은 교회에 갈 때 입으라고 권하였고, 낭비성 있는 교내행사까지도 금할 정도였다.

(3) 전적 믿음과 천국 만남의 약속

서서평은 조선에 들어온지 4년째 되는 1915년부터 1934년 선교사역을 마칠 때까지 약 20년간 스

프루라는 만성풍토병으로 고통 받으며 생활하였다. 간호사 외의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항상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의식주를 내어주다 보니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서서평은 이러한 병약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하였고 늘 “나는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몸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하였다.

서서평은 임종 전 약 4개월 동안 병과 사투를 하였고, 병원의 권유로 수술을 하였으나 오히려 수술 이후 몸이 악화되어 병의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호흡만 거두면 장기를 해부하여 연구자료로 삼으세요”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는 자신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환자가 없도록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한 것이었다.

1934년 6월 26일 서서평은 53세의 나이로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소천하였다. 그녀는 자신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소천 이후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동전 2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다. 그리고 서서평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제자들과 자녀들, 교우들이 불러주는 찬송을 들으며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이때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성공보다는 섬김이다.”라는 좌우명이 걸려있었다고 한다. 미국 장로회는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중에서 서서평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서서평의 삶에 교회장이 아닌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고 이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없이 수천 명의 광주시민들과 나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외치며 오열하였다고 한다.

저의 좌우명이 ‘성공보다는 섬김’, ‘영토의 확장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려고 애쓴 터여서 정작 제 자신의 문제에는 민감하게 대하지 못했기에 제가 수많은 어린 양들을 끌어 모으고 돌보지도 못하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했다고 수근거렸을 겁니다. 저 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떠났으니깐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낸 제가 믿음으로 바라고 추구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양국주, 2016, 273. 그대 행복한가요? 중에서)

2. 유아교육적 함의

1) 관계성이 회복되는 치유

서서평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 명령대로 살겠다는 신념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 당시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나라 민족들을 치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는 열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서서평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당시 한국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하였고, 1923년 한국간

호협회를 조직하고 간호학 교과서와 책들을 직접 번역하여 간호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고, 집안일에 갇혀 지내고, 사회적 지위가 없었음에도 서서평의 끈기 있는 노력으로 조력회 훈련을 통한 초석을 다지며 모임을 구성하고 이끌었었고, 이는 오늘날의 한국의 여권신장에도 큰 힘이 되었다. 즉, 당시 여성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에 앞장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남기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말함에 인식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당부하였다.

어머니와의 문제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고 제가 거두었던 수많은 자녀들과 고아들, 과부들을 끝까지 먹지 못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옵니다. ~중략~ 어미로서 조를 따사롭게 보듬지 못하고 보니 제 어머니의 마음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어린 조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헤어졌답니다. 결국 대물림하는 셈입니다. ~중략~ 부디 살아생전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에 결코 인색하지 마시기를...

(양국주, 2016, 273. 그대 행복한가요? 중에서)

권미량·하연희(2014)는 인간, 자연을 아우르는 인격적 만남에 기초하여 자신, 타인, 자연과의 본질적 우대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을 관계성이라 하였다. 서서평의 민족을 뛰어넘는 인격적 관계성을 통해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타인과의 만남과 배려, 헌신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치유하는 유아교육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창작 뮤지컬 2014.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중에서)

2) 실천적 돌봄이 있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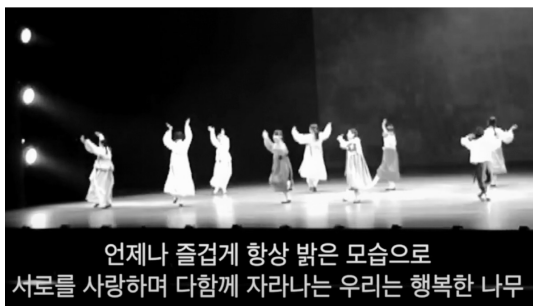
건강한 유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초·중·등 교육

과는 달리 성취보다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며 이를 위한 사랑과 돌봄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요시 한다.

서서평은 어린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랑으로 총 14명의 양딸과 양아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그 사랑에는 예수님의 어린이를 고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실천적 다짐과 고백을 품고 있었다.



엄마가 해준 말 우리는 행복한 나무
비록 지금은 작고 여러지만 언젠간 푸른 나무 될거



언제나 즐겁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다함께 자라나는 우리는 행복한 나무

(창작 뮤지컬 2014.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중에서)

서서평은 예수님의 가난한 자, 병자를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며 거리의 노숙인들을 향한 사랑의 구제를 주저하지 않았다. 교회의 평화를 위한 도움과 헌신까지도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언행일치의 실천적 영적 돌봄의 삶으로 인해 서서평의 장례는 광주 지역 사회장으로 치르기도 하였다.

또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장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도시지역 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로 찾아가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선교운동이었고 그 시작과 중심에는 서서평이 있었다. 확장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일학교 학생들, 농업실습학교 학생들, 송일학교·수피아여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 동원하여 훈련을 시킨 후 마을로 보내었고 아이들에게 선물과 상도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서서평은 정직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이에 서서평 자신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접 책임지려 하고,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입장이 불리하더라도 정직함의 자세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엄격한 삶의 자세를 통해 가르침은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육이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명확한 생활을 위한 가르침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서서평교장은 학생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중략~ 진실, 정직, 성의, 시간 엄수 등 모든 학교 규칙이 너무나 치밀하고 엄격하다는 것이 이유였다.~중략~ 어느 교장이든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

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중략~ 예수님도 광야에서 5천 무리를 먹이실 때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안하셨다(막 6:40). 만일 이렇게 정돈하여 나눠 앉히지 않았으면, 12명의 제자가 다섯 개 또는 일곱 개의 빵을 그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불리 나누어 먹일 수 있었을까?~ 중략~ “학생들 비위 맞추기 위한 교육이 아니예요”

(백춘성 2017. 85,87,90..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천천히 평온하게 중에서)

노상우(2003)는 교육활동과 교육경험이 생명활동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채영숙·하연희(2016)는 생활의 실상이자 일상적인 체험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르치는 일은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생명활동이어야 한다. 서서평선교사의 돌보는 가르침은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같다. 오늘날 유아, 교사, 부모가 삶의 동반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보는 실천적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3)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교육공동체

서서평은 섬김의 삶을 위해 3가지를 실천하였다. 첫째, 자신을 위해 인색하기, 둘째, 타인을 위해 낭비하기, 셋째, 복음전도를 위해 부지런하기이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데 구제사역이 중요하다는 신앙적 신념과 어린시절의 불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며 구제에 힘쓰고자 하였다. 더불어 13명의 양딸과 1명의 양아들을 혼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에 헌신하였다.

서서평은 김화남, 강계생, 오복희 등 기구한 삶을 사는 과부들을 환대하여 이일학교에 등록시켰다. (중략) 서서평의 이일학교는 고아나 과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안락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환대적 가정 역할도 했다. (중략) 일정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봉급과 헌신적 희생을 통하여 일반 여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임희모, 2020 160,161. 서서평선교사의 통전적 영혼 구원 선교 중에서)

이처럼 서서평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바탕으로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며 험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김미진·김병만(2012)은 최근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유아교육기관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로운 바른 인격의 생명존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소양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교육은 생태적 관계망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명적 고리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귀이 여

기도 섬기는 관계성이 교육공동체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공동의 구성원인 유아, 부모, 교사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며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눔과 모심을 중시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상호작용하며 영적 심적 교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섬김으로 가능하며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제순, 2003).

V. 논의

본 연구는 죽음 이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서서평의 삶을 살펴봄에 이를 통해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서서평의 여러 기록물 중에서 대표적 서적인 백춘성(2017)의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와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통해 서서평을 접하거나 알게 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는 “가장 먼저 앞서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몸 전체로, 섬김이 무엇인가를 삶 전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前 대한간호협회회장 홍신영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배우 김현숙은 “끝없는 질문과 도전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지치고 많이 힘든 분들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아나운서 이정민은 “진짜 많이 부끄러웠어요.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저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다 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서서평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통해 나타나는 서서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이순신, 세종대왕 등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 못지않게 각박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가치의 내포와 중요한 감동의 시사점을 전하고 있다(이란, 지상선, 2017).

이에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 중에서 예수님의 낮은 마음,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즉,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조선을 섬긴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서서평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과 유아교육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사는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서서평선교사가 보여준 헌신적인 삶은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사들도 교사로서의 본분과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순히 직업의식을 넘어선 사명감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유아교사는 지속적인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서서평선교사의 삶은 본인의 신앙적 이론의 실

천을 넘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기에 힘썼다. 그녀는 검소한 생활, 일관성 있는 가르침 등의 실천적 삶을 통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태도와 교육방법을 자주 점검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은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서서평선교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랑과 헌신은 유아교육공동체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상 교육 외 돌봄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유아와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과 교육기관이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 환경이 구성될 것이다.

Seligman(2009)은 행복이론(authentic happiness)을 제시하며 즐거운 삶(pleasant life), 몰입하는 삶(engaged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 life)이 행복의 요소라 하였다. 이 세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충만한 삶(full life)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는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믿음과 관심의 자양분과 어린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佐藤孝, 2014). 즉, 서서평선교사의 삶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동시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에서 ‘우리’라고 인식하며 정을 나누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 현장이 돌봄과 배움이 살아있도록 생명성을 회복시키고 유아교육기관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선을 섬긴 선교사 서서평의 삶과 같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서서평의 삶은 몸과 마음의 치유, 돌봄이 있는 가르침, 섬김의 교육공동체의 유아교육적 함의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경쟁과 갈등, 불안함과 불확실성 특히, 초저출산 문제 등 여러 당면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많은 구성원들이 무력감, 상호 불신, 갈등, 소외 등 비생명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전달되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가 유아교육현장이 보듬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랑과 헌신, 섬김이 있는 살맛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비록 본 연구는 서서평선교사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머물렀으나, 앞으로 이를 넘어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기독교 유아교육에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하며 다음에 제시한 서서평선교사의 맹세를 통해 교육에 적용점을 숙고하여 진정한 섬김과 회복이 있길 소망한다.

“나는 주의 앞과 증인 앞에서 4가지 조건을 맹세하나이다.

1.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뜻으로 직무를 행하며

2. 약이 해 있는 줄 알고는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복용케 하거나 시술치 아니하며
3. 근면하여 본직으로 고귀한 위(位)에 일치케 하며 병인과 자기만 아는 바 병인의 신분에 해로운 일체사는 구외(口外)에 내지 아니하며
4. 충심으로 의사를 보조하며 자기 담당한 병인에게 마음과 몸을 다하기로 함

(백춘성 2017. 7. 8.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중에서)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정희 (2022). 서서평 선교사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교도적 윤리. **신학과 사회**, 36(2), 207-236.
- 고제순 (2003). “생명의 사랑학”으로서의 철학. **철학연구**, 85, 1-22.
- 권미량·하연희 (2014).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와 교사의 관계성 탐색. **유아교육연구**, 34(4), 281-302.
- 김기용 (2020). 서서평의 사회선교로 본 상황화 선교와 한국교회. **선교와 신학**, 50, 131-158.
- 김미진·김병만 (2012). 생태유아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생태 유아교육연구**, 11(12), 29-55.
- 김새은 (2012). 해직 언론인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연구: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56(3), 292-319.
- 김윤자 (2016). **Clara Howard(허길래)가 한국 유아교육에 미친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김은주 (2015).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의 교육사역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대한 함의. **신학과 사회**, 29(2), 45-90.
- 김인자 역 (2009).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Seligman, M. (2004).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 안양: 물푸레.
- 김혜정 (2020). 기독교 여성 생활사 공동기록(15) 선교, 교육, 봉사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 **새가정**, 67, 25-29.
- 민성은·최성호·김영천 (2017).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465-500.
- 박형국 (2017). 인간다움에 대한 신학의 성찰: 서서평과 칼 바르트의 유산. **선교와 신학**, (43), 211-240.
- 백춘성 (2017).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울: 두란노.
- 손우영 역 (2014).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배움이 있는 수업 만들기**. 佐藤学 (2000). *授業を變える學校が變わる*. 서울: 에듀니티.
- 송치숙·박종배 (2019). 분리와 통합의 측면에서 본 근대 이후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 **교육사학연구**, 29(1), 31-52.
- 양국주 (2012).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셰핑 이야기**. 서울: Serving the People.
- 양국주 (2016). **그대 행복한가요?: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바보들에게 살아가는 서서평의 편지**. 서울: Serving the People.
- 양참상 (201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서평의 사랑과 인생**. 서울: Serving the People.
- 오주철 (2023).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교육이 한국 근현대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논집**, 90, 41-78.
- 윤매옥 (2016). 일제강점기 서서평 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 **문화기술의 융합**, 2(1), 71-78.
- 윤매옥 (2017). 한국간호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셰핑(Elizabeth J. Shepping, R. N.)의 간호선교. **문화기술**

의 융합, 3(4), 107-115.

이란·지상선 (2017).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서평>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신앙과 학문**, 22(4), 161-196.

이상규 (2012). 기독교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부경교회사연구**, 37, 21-32.

이상금 (1987). **한국근대유치원교육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윤진 (2006). **일제하 유아보육사 연구**. 서울: 혜안.

이혜숙 (2016).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평(Elizabeth Johanna Shepping)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30(4), 431-476.

임순재 (2012). **출판인 나춘호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아동도서 출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Leem, S. J. (2012). *Research on biographic life history of editor Chun Ho Na*. Seoul, Korea: Chung-Ang University, .

임재택 (2003). 가르치지 않는 유아교육. **생태유아교육연구**, 2(1), 1-20.

임희모 (2017). **서서평 예수를 살다**. 서울: 케노시스.

임희모 (2019). 토착화 선교사 서서평(Elisabeth J. Shepping)의 사역. **선교와 신학**, (48), 335-366.

임희모 (2020). 서서평 선교사의 생명살림의 하나님 나라 선교 - 섬김의 영성과 주변부인들의 변혁 선교-. **대학과 선교**, (46), 173-203.

조혜경 (2018). 서서평 선교사의 간호사역의 특성. **선교신학**, 51, 212-234

채영숙·하연희 (2016). 생태유아교육 거점유치원 운영에 나타나는 변화의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5(3), 149-173.

채영숙·하연희·권미량 (2020). 생태유아교육기관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적 관계성의 의미. **생태유아교육연구**, 19(1), 61-90.

황문수 역 (2019). **사랑의 기술**. Fromm, E. (1976). *The Art of Loving*. 서울: 문예출판사.

King, M. L. (2003). *A Testament of Hope*. CA: Harperone.

Miller, R. L. (2000). *Researching life stories and family histories*. CA: Sage Publications.

Schweppe, C. (2003). *Qualitative forschung in der Sozialpadagogik*. Opladen.

뉴스앤조이 (2012). “조선의 데레사, 서서평을 기억하다.”.(2024. 10.20.).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0>

조선을 섬긴 서서평선교사의 삶과 유아교육적 함의

The Lif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mplications of Seo, Seo-Pyeong Missionary who Served Joseon

하연희 (고신대학교)

김초룡 (고신대학교)

정병탁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권미량 (고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1912년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일생을 조선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한 서서평(徐舒平, Eliz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의 삶을 전기적 생애사 연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현대사회 유아교육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영상, 사진 자료들의 귀납적 분석을 통하여 서서평 선교사의 생애를 고찰하였으며, 관계성이 회복되는 치유, 실천적 돌봄이 있는 가르침,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교육공동체라는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성의 회복이 절실해지는 현대사회와 유아교육에 생명존중의 삶과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사랑과 섬김, 헌신이 있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유아교육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울림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서서평, 선교사, 사랑, 섬김, 헌신, 공동체, 유아교육